

다문화가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전통춤 교육방안

-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날피북춤을 중심으로-

정윤희

(영남사이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마이크로 러닝의 개념과 특징
 - 2.2.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3. 한국 전통춤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
 - 3.1. 적용 가능성
 - 3.2. 학습자 요구분석
 - 3.3. 마이크로 러닝 모형과 수업 단계
4. 결론

<Abstract>

Jung, yoon-hee. 2021. 7. 12. **Korean Traditional Dance Education Methods for Learn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Nalmoe Drum Dance using Micro-Learn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8, 115-15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provide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learning models using

micro-learning techniques. This research designs class models by applying multi-store models and task memory models, which serve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icro-learning techniques, that leads to memory recall-memory storage-memory activation, and activate learners' cognitive abilities to reach medium and long-term memory allowing learners to store what they have learned as work memories for longer periods of time and utilize them. To this end, this research presents teaching-learning case utilizing motion capture of Nalmoebukchum(Nalmoe Drum Dance). It is expected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education using micro-learning techniques will reduce mental difficulties that multi-cultural learners may feel while settling in Korea and enhance cultural education and social adaptation by gaining emotional stability through culture. (Youngnam Cyber University)

[Key words] Micro-learning, long-term memory, dual-coding,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traditional dance, Nalmoe Drum Dance

1. 서론

본고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예술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들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전통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학습을 통하여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정신적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자국의 전통춤과 비교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통계청 조사¹⁾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68,594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1) 2020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청.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 특히 이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는 ‘교류 행동 의지’의 실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이주민들과 함께 다문화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재능기부의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천할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에 재능기부 의지가 강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문화적 이질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한국 문화교육

<표 III-6>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2012, 2015, 2018

사 례 수 (명)	비 율 (%)	수 용 성 (점)	차원(점)			구성요소별(점)								
			다 양 성	관 계 성	보 편 성	문 화 개 방 성	국 민 정 체 성	고 정 관 년 및 차 별	일 방 적 동 화 기 대	거 부· 회 피 정 서	교 류 행 동 의 지	이 중 적 평 가	세 계 시 민 행 동 의 지	
			W1=100	W1=39	W2=38	W3=23	w1=12	w2=13	w3=14	w4=12	w5=14	w6=12	w7=12	w8=11
2012	2,500	100	51.17	53.23	49.86	49.85	48.08	48.84	61.73	49.91	55.17	43.61	46.96	53.00
2015	4,000	100	53.95	55.15	53.45	52.76	49.36	50.32	64.60	46.44	66.01	45.81	48.88	56.98
2018	4,000	100	52.81	53.90	51.59	52.98	49.34	48.78	62.58	45.69	64.46	42.48	48.25	58.13

2) 여성가족부(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되어 온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되어 온 청소년 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2012년 51.17점, 2015년 53.95점으로 3년 사이 1.64점 상승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52.81점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 전통예술 문화교육, 특히 한국 전통춤 중에서도 대구 날피북춤을 사례로 들어 교육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어렵다고 하여 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향상되지 않고 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³⁾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감과 소통, 협력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과교육 과정 속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나라별 민속놀이와 악기 연주 등을 배우면서 타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그 대상은 학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당진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기업, 공공기관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 이해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다.⁴⁾

실제로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⁵⁾에

3) 경덕중학교(2019),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델 개발.적용.

4)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472>

5) 강비아(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현황

따르면 다문화 가족 1차 정책(2010)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끄는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2차 정책(2013)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함양하는 것을 중점으로 바뀌었고 3차 정책(2018)에서는 참여와 공존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초가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적응과 자녀 양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정적 태도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였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전통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예술문화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상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국적과 민족, 시대를 떠나 누구나 공감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의 전통춤을 배움으로써 한국인, 한국문화는 물론 전통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인과 함께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의 삶의 애환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향상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통합의 미래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국 전통춤 수업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방안 설계도 필요하다. 현재 세종학당,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화 온라인 콘텐츠를 목록을 살펴보아도 한국 전통춤 관련 동영상 교육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주입식의 강제화 된 사회통합이 아닌, 한국 전통춤과

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같은 예술문화교육을 통한 정서적 차원의 교류 확산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체험 중심의 문화 교수법에서는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e러닝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문화 교수법 개발은 특히 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교수자-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전통춤 교육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 러닝은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⁶⁾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개인 모바일 사용과 작은 덩어리의 콘텐츠 선호와 같은 소단위 정보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열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기법을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 등에 활용하는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크로 러닝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주제를 압축하여 그 내용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전달하는 등 콘텐츠의 소량화를 통해 단기 기억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e러닝의 한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상호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짧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6) 박야성(2016)의 마이크로러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법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홍정표(2019)의 임계경로법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가영(2019)의 국내 HRD 담당자의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이외에 마이크로 러닝과 모션 캡처 관련한 연구로는 강다미(2020)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영(2018)의 키넥트 방식의 3D 모션 캡처를 통한 김백봉 부채춤 동작 분석 및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성아(2001)의 모션 캡처 테크놀로지의 무용교육 적용방법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최권희(2021)는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개념만 골라서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변화 속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만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한국 전통춤 학습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이를 통한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증대와 한국 문화 이해와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경주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수강 중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춤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마이크로 러닝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대신해 모션 캡처 영상 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제작된 날피북춤의 모션 캡처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⁷⁾ 그리고 수업의 실제와 평가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예술을 통한 다중 인지능력 향상은 인지를 통한 정서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크로 러닝의 개념과 특징

마이크로 러닝은 이중부호화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러닝,

7) 날피북춤의 모션 캡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디지털 복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진전문대학교 모션 캡처 센터 김경수·남주현 교수에 의해 2004.10.27-28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대구의 전통무용 脈, 날피북춤편 CD2로 제작되었다. 북춤을 시연한 사람은 윤종곤 현 날피북춤 보존회장이다.

U-러닝, 플립러닝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한 학습기법이다. 마이크로 러닝이란 비교적 작은 학습 단위와 단기 집중에 초점을 둔 활동(Hug, 2005)을 말한다. Hug에 따르면 ‘마이크로 러닝은 전체 길이가 초 단위에서 분 단위로 비교적 짧아야 하고, 지식의 분절 형태로 지극히 제한적인 텍스트와 세분된 주제가 제시된 조그만 단위의 학습 콘텐츠로 제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럽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포털 학습 시스템(OPALESCE : Online Portal and Active Learning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을 위한 연구에서 Buetner와 Pechuel(2017)은 모바일 러닝의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서 ‘마이크로 단위(Micro Uni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⁸⁾

마이크로 단위란 하나의 주제와 명확한 학습 목표에 집중하는 매우 짧은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중략) 마이크로 단위는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단시간에 이뤄지며 더 큰 단위의 주제는 마이크로 단위를 여러 개 더한 그룹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단위의 학습 과정을 접하는 학습자들은 화면을 하나씩 넘겨볼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추고 이전 내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이용하는 화면은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마이크로 기법은 단시간 학습과 반복 학습, 그리고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에 적합하다. 특히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의 집중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형모(2013)는 주어진 학습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집중하고, 이러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를 학습 집중도라고 정의하였

8) Beutner, M. & Pechuel, R. (2017). Micro Units - A New Approach to Making Learning Truly Mobile. In P. Resta & S. Smith (Eds.), Proceedings of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pp. 744-751.

다.9) 이러한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에서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할 수 있는 학습 매체가 중요하다. 이 같은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표 1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

항목	특징
학습 환경	텍스트와 동영상 등 다중 미디어를 통한 자기 주도 학습
학습 시간	5분 내외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콘텐츠	마이크로 단위 콘텐츠로 편집과 수정 용이
학습 형태	소단위 에피소드, 지식의 덩어리, 기술적 요소 지속적 상호 소통
학습 유형	자기 주도적, 반복적, 개인 학습 환경, 플립러닝
학습 내용	구체적이고 단순한 주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은 하나의 커다란 학습 단위를 한입에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one-bite-sized learning)의 개념으로 압축시킨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러닝은 5분에서 최대 10분 내외의 학습 시간과 주제를 포함한 작은 단위의 콘텐츠,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단시간에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9) 안형모(2013)는 특정 과제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주의 집중을 학습의 기본 요인으로 보고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높은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의 집중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다른 인지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 박야성(2016), 홍정표(20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2.2.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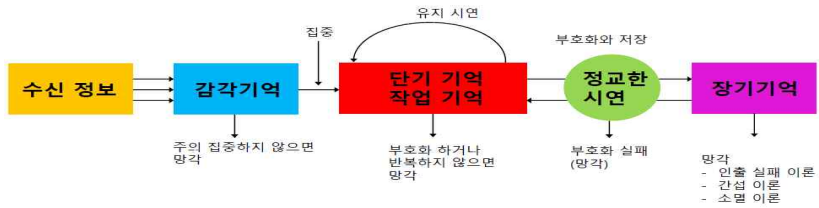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마이크로 러닝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과 교수-학습에의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교수-학습활동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으로 분류되는 다중저장소 모형, 작업 기억 모형, 이중 부호화 이론 등이 있다. 문용열(2010)에 따르면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컴퓨터에 정보가 투입되고 처리, 저장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산출되는 것처럼 학습이 일어나면 정보가 학습자에게 투입되고 기억에서 처리 및 저장되며 이후에 학습된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 산출된다는 것이다.¹¹⁾

2.2.1 다중저장소 모형(Multi-store Model)

1960년대에 접어들어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정보처리 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기반하여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인지 활동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먼저 Atkinson&Shiffrin(1968)이 개발한 다중저장소 모형을 들 수 있다. 다중저장소 모형(Multi-store Model)은 인간의 기억은 세 가지의 구조적 요소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감각등록기(sensory register),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마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처리하고 산출하는 과정과 유사

11) 문용열(2010),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을 응용한 고전소설 기본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쪽~27쪽.

한 형태인 일련의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시각과 청각, 촉각과 미각, 후각 등을 통해 인간의 감각등록기에 입력된 정보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1-2초 정도만 머무르며, 이후 일부는 망각하게 되고 일부는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단기 기억에 전달된 정보는 20초 정도 단기 기억 속에 머무르며 이 과정에서 의식적인 사고 즉 부호화나 다시 듣기 등의 단계를 거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망각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양은 무제한으로 처음 감각 등록기에 입력된 정보 중에서 일부지만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언제든지 변형된 형태로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림 1 다중저장소 모형>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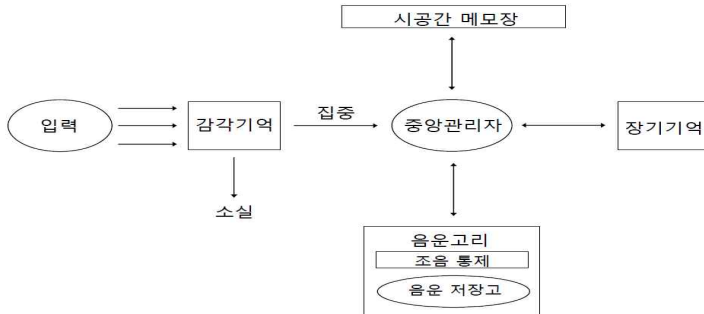
따라서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 이 바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가 성공에 이르게 하는 열쇠라는 점에서 인지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기억 저장고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이 저장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러닝 기법은 단기 기억 방식을 통해 학습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부호화함으로써 장기 기억화 하고자 하는 학습 방식과 연관된다.

12) <https://psychology.stackexchange.com/questions/14044/what-is-the-information-storage-capacity-of-the-human-brain>

2.2.2 작업 기억 모형(Working Memory Model)

이러한 Atkinson&Shiffrin의 다중저장소 모형에서 나타나는 단기기억을 더욱 심도 있게 분류한 것이 Baddeley&Hitch(1973)의 작업 기억 모형(Working Memory Model)이다. 앞서 다중저장소 모형에서 단기기억을 하나의 고정된 저장소로 분류한 것에서 나아가서 단기기억과 작업 기억(working memory)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작업 기억은 능동적이고 활성화된 기억으로 지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 기억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었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서 하나의 일화처럼 기억하는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를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단기기억 안의 여러 시스템 속에는 획득된 정보 입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복합적인 인지와 사고를 담당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정보는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인출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참고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정보를 꺼내어 회상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에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기억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거나 일종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작업 기억으로 들어간 정보는 곧바로 개념적으로 부호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장기기억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정보의 의미를 약호화해야 한다.¹³⁾

13) 양용철(2002), 수업 설계를 위한 학습심리학, 교육과학사, 118쪽~121쪽.



<그림 2 작업 기억 모형>¹⁴⁾

Baddeley(2000b)에 따르면,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중앙관리자와 언어적 작업 기억,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작업 기억, 그리고 에피소드 버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구성요소는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¹⁵⁾ 중앙관리자는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으로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기억과 음운 회로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정보 기억 안에서는 뇌의 시각 영역을 활성화하여 일종의 이미지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영역이고, 음운 회로 속에는 언어정보를 담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심리학의 바탕이 되는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다. 이 작업 기억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가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저장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특별한 선행 경험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는 작업기억의 한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작업기억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큰

14) <https://www.simplypsychology.org/working%20memory.html>

15) 진화봉(2002), 언어정보와 시각 정보의 통합과제 학습에 작동기억이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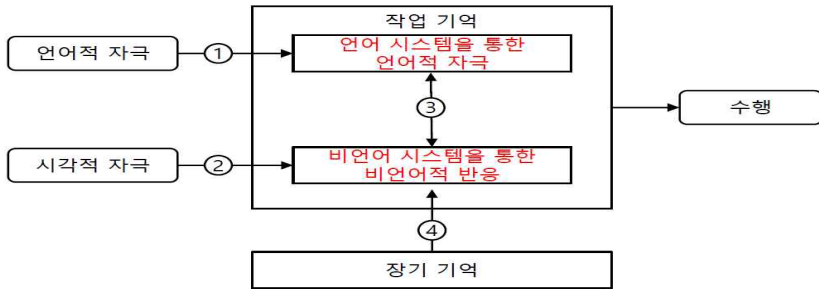
영향을 준다(Baddeley, 2002). 따라서 작업 기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2.3 이중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

학습자의 정보를 장기기억의 창고에 저장하는 데에는 두 개의 개별적인 부호화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는 이중부호화 이론이 있다. Paivio(1979)는 인간이 일정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기억하는 데는 언어적 시스템(verbal system)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지식을 재현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언어적 시스템(nonverbal system)이 있다고 보았다.¹⁶⁾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는 언어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부분이 바로 비언어적 시스템이다. Paivio(1990)에 따르면 이미지와 글자는 서로 다른 인지적 재현물이기 때문에 뇌에서 이를 받아들일 때는 서로 다른 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이는 언어적 기억(verbal memory)은 언어 체계와 연관되어 있고 비언어적 기억(nonverbal system)은 그래픽과 소리, 감각과 비언어적 사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적 정보를 습득하고 나면 정보는 감각 기억에서 시각 프로세서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언어적 정보를 습득하면 이 역시도 언어를 담당하는 프로세서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프로세서에 전달된 정보가 다른 프로세서에 저장된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¹⁷⁾

16) 김경희(1997), 언어정보의 제시 형태에 따른 학습효과 연구: 컴퓨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수반되는 언어정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18쪽. 재인용

17) Elaine Huel-Lien Chen(2004), A review of Learning Theories from Visual Literacy,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Design&Online Learning Vol.5, Fall



<그림 3 이중부호화 모형>18)

Paivio(1979)에 따르면, 이중부호화는 어떠한 정보가 상상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더욱 활발히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에 있어 하나의 어휘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 어휘를 설명할 때 언어적인 설명과 더불어 시각적인 설명까지 더하면 이는 작업 기억 내에서 언어적 시스템과 시각적 시스템 속에 전달이 되고 이는 장기기억으로 이어져서 결국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적 재현, 시각적 재현, 그리고 언어적이고 시각적인 재현의 연결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Mayer, 1989b; Mayer&Anderson, 1991; Mayer&Sims, 1994; 김경희, 1997, 재인용).

3. 한국 전통춤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다문화 수용성

18) Mayer, R.& Sims, V.(1994), For whom is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 Extension of dual-coding theory of multimedia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3), p.390.

과 관련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 강사 연계 강화에 대한 항목으로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과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활성화, 교원 연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다문화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학습자 요구분석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으로 이를 운영할 경우, 자칫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족 프로그램과 성평등·인권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홍보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중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으로, 결혼과 가족의 이해, 아버지 교육, 자녀교육, 가족 관계 향상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성평등·인권 프로그램은 가족 내 성평등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간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과 구직,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교육훈련과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상담 프로그램은 가족 상담, 개인과 집단 상담, 위기 가족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며, 홍보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홍보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1월 기준, 서울권 25개, 부산 14개, 대구 8개, 인천 9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세종 1개, 경기권 31개, 강원 18개, 충북 12개, 충남 15개, 전북 14개, 전남 22개, 경북 23개, 경남 19개, 제주 2개로 총 22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에

19) 여성가족부(2021), 2021년 다문화가족 사업 안내(Ⅰ), 165쪽~185쪽.

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30개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 전통예술, 그중에서도 한국 전통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보기 힘들다. 황재섭(2011)²⁰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무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단 7곳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전통춤 학습에 대한 요구나 학습 가능성, 그리고 학습 과정과 운영 결과의 유의미한 결과 도출 등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학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기에 언어교육과의 통합형 문화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3.1. 적용 가능성

전통예술 중에서 춤은 몸동작을 이용한 내면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술이다. 몸동작, 즉 행위가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일회적 신체의 움직임이 아닌, 규범화되고 질서를 가진 의미 있

20) 황재섭(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 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27쪽.

지역	무용 교육내용	기간	대상	인원
횡성	한국무용(전통무용)	주 1회, 1년 단위	이주결혼여성	5명
가평	한국무용(전통무용, 북)	주 1회, 6개월	이주결혼여성	3명
서산	한국무용(부채춤)	주 1회, 1년 단위	이주결혼여성	10명
장수	한국무용	주 1회, 6개월	이주결혼여성	5명
장흥	한국무용(장고춤)	주 1회, 1년 단위	이주결혼여성	15명
김천	한국무용(부채춤, 강강술래, 화관무)	주 2회, 6개월	이주결혼여성	12명
순창	한국무용(부채춤)	주 2회, 3개월	이주결혼여성	9명

는 소통행위일 때 우리는 이를 행동 문화라 한다. 그리고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일된 약속이며 전승되고 학습되는 대상이다. 전통춤은 전통문화 시대의 정신적 생활양식의 결과물이며 행위자의 주체적 정서를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춤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통춤을 둘러싼 다양한 행동 문화와 그 행동 문화를 야기하는 관념 문화를 이해한다는 뜻과도 같다. 특히 전통춤은 한국인의 미학, 신명, 한, 공동체 정신, 지향하는 이상세계 등을 집약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학습 대상이다.

심우성(1991)은 인간의 신체 움직임과 주변 상황들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그 자체가 사회, 문화, 민족 전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러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학문이 무용 인류학이라 정의한다.²¹⁾ 김용복은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을 크게 ‘씻김의 풀이 개념’과 ‘풍류의 놀이 개념’으로 구분하고, 특히 ‘씻김계의 풀이’를 ‘한-그늘-흰그늘[신명]’로, 시간적 의미가 감정과 정신에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확대되는데, 인간 개인으로부터 공동체적 감정구조로 확대되고, 나아가 신과 인간의 관계로 신인 합일을 이루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²²⁾ 이 논지를 따른다면, 전통춤은 한국에 이주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소위 삶의 다양한 ‘그늘’에서 벗어나서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마이크로 러닝 기법의 한국 전통춤 학습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문화 능력은 문화에 대한 인지력(이해력, 비판력)과 실천력(적용력, 적응력)의 결합 정도를 말한다.²³⁾ 한국 전통춤 학습에서도 문화 능력

21) 정신혜(2019),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영남 전통춤의 문화정체성 전승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쪽~17쪽. 재인용

22) 김용복,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무용역사기록학> 제41호, 무용역사기록학회, 71쪽.

향상을 추구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전통춤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다고 할 때 기억의 활성화 부분은 크게 인지적 요소로서의 이해력 활성화와 행위적 요소로서의 적응력 활성화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작고 짧은 행위 학습에 강하다는 점이다. 춤은 유의미한 작은 동작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유의미한 동작의 연속은 하나의 서사를 지닌다. 따라서 춤을 학습한다는 것은 연속 동작의 분절적 학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분절적 학습은 반복 학습을 통하여 숙달되는데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모션 캡처 방식이나 짧은 길이의 동영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분절적 동작의 반복적 학습을 가능케 하며 그 결과 또한 고무적이다. 한국의 전통예술 중에서 행위예술이나 공연문화에 해당하는 많은 사례가 부분의 독자성과 부분과 부분의 연속이라는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판소리도 작품 전체를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 출도 장면’, ‘심봉사 눈 뜨는 장면’ 등, 부분의 독자성을 가진다.

본고에서 학습모형 개발의 사례로 사용하는 ‘날뽕춤’²⁴⁾ 역시 몸동작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닌 행위체이다. 특히 북춤은 12마당으로 구성되는데²⁵⁾ 각 마당은 한국 전통 농경 사회 문화와 한국

23) 참고로, D. Lussie도 문화 능력의 하위 구성부를 문화 이해력 문화 적용력 문화 적응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성영(2005),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프랑스 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20,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쪽~22쪽. 재인용.

24) 이종희는 김수배류 <날뽕춤>의 특징으로,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 그리고 남성적 기개가 넘치는 군무와 개인 놀이에서 두드러진 즉흥적 춤사위”를 들었다. 그 외에 “힘차게 내리치는 원 박의 북 리듬과 함께 특하고 내딛는 디딤과 너털너털 진행되는 디딤과 평사위로 너울너울거리는 팔 사위 ④ 푹 하니 떨어지는 손목놀음 ⑤ 오금채로 흥청거리며 원 돌기 등”을 꼽았다.

25) 구성 마당은 다음과 같다. 인사굿, 길군악-정적궁이-반직굿-엮어빼기-다드래기-물레돌기-허허굿-오방진-모듬굿-굿거리-덧배기-뒤틀마당풀이

인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시점이 소위 스승이 제자를 앉혀놓고 한소절씩 가르치는 도제식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마이크로 러닝 기법은 한국 춤 학습에 상당히 효율적인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날피복춤의 경우,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춤을 배울 수 있고, 이미 날피복춤의 춤 동작을 모션 캡처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료로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날피복춤 12마당 중에서도 외발 돌며 복태치기 등 개인 기량이 돋보이는 ‘모듬굿’의 일부를 예로 들어 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해보기로 한다.

한편, 복춤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음악 도구이자 춤의 일종이다. 복은 신을 접하고 신을 부르는 주술의 기능을 하며, 전쟁에서 용기를 돋우거나 멀리 신호를 보내야 할 때도 사용한다. 신명 나는 춤사위 한 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 순화의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복춤의 학습은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성인 여성이 복춤을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이주해온 다문화가정 중에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복춤이 지역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친근한 춤의 일종이다. 일본 또한 태고무와 같이 지역별로 복춤이 유명하여 다문화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춤을 학습하기 위한 동기 유발이 비교적 쉽다. 그 외 국가에서도 복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형태의 전통무용이나 민속무용 등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

권오경은 날피복춤 보유자 윤종곤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²⁶⁾ 그는 모듬굿 과정에서 윤종곤의 복춤사위를 촬영하고 모션 캡처 영상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일시 정지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마이크로 러닝에서는 춤사위 동작이 마무리되는 부

26) 권오경(2020), 날피복춤 예능보유자 윤종곤 명인의 예술세계, <영남춤학회誌>, Vol.8, No.2, 영남춤학회..

분을 실제 춤추는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학습의 편의를 위해 하이라이트가 되는 동작의 모션 캡처를 활용하여 각 동작이 이루어지는 신체 각 부위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간접 체험형식으로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의 모듬굿 동작²⁷⁾에 해당하는 모션 캡처를 이미지로 제시하고, 더불어 짧은 단위의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별 동작을 익히고 직접 따라서 연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날피북춤 모듬굿 동작>

다음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국 전통춤 학습에 대한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27) 권오경(2020), 위의 글, 46쪽.

활용한 학습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수업모형 설계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제 수업 사례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3.2. 학습자 요구분석

마이크로 러닝 기업을 활용하여 한국 전통춤을 다문화가정 성인에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한국 전통춤에 대한 학습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습조건이나 모국의 전통춤에 대한 기본 인지 정도를 확인해야 학습모형을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요구조사는 심층 면담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향후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전통춤 교육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요구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9개월에서 13년에 달하는 결혼이민자로 현재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던 학습자를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한국어 능력 수준은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 요구조사를 위한 심층 면담은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단상담실에서 2021년 5월 28일, 6월 4일, 11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심층 면담에 참여한 결혼이주민 한국어 학습자는 총 11명이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재질문한 다음, 질문지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심층 면담 응답자 인적 사항>

	국적	나이	거주 지역	한국 거주 기간
A	인도네시아	20대 중반	경주시 용강동	1년
B	베트남	20대 중반	경주시 동부동	5년
C	중국	20대 후반	경주시 천북면	9개월
D	캄보디아	30대 초반	경주시 황성동	7년
E	캄보디아	30대 중반	경주시 구정동	12년
F	캄보디아	30대 중반	경주시 용강동	6년
G	우즈베키스탄	30대 중반	경주시 현곡면	1년
H	인도네시아	30대 후반	경주시 내남면	9년
I	중국	40대 초반	경주시 충효동	10년
J	중국	50대 초반	경주시 외동읍	13년
K	인도네시아	40대 초반	경주시 황성동	3년

심층 면담 대상자들은 모두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 1회에서 3회에 걸쳐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들로 본 연구의 목적과 활용 방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기본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나이와 이름, 출신 국가와 한국 거주 기간과 거주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어서 한국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심층 면담 질문지>

번호	질문 내용
질문 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②	자국에 전통춤 중에서 북춤이 있습니까?
질문 ③	한국의 전통춤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질문 ④	한국의 전통춤을 배운다면 어떤 춤을 배우고 싶습니까?
질문 ⑤	한국의 북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⑥	만약 북춤을 배운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배우고 싶습니까?
질문 ⑦	만약 북춤을 배운다면 일주일 몇 회, 몇 시간까지 배울 수 있습니까?
질문 ⑧	온라인으로 북춤을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
질문 ⑨	대면과 비대면 수업 중 어느 쪽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⑩	한국의 전통춤을 배운다면 한국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첫 번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총 11명의 면담자 중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봤다는 답변이 4명, 간접 체험 즉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1명,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체험해 보지 못했다는 답변이 총 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거주 기간이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3년인데 반해 한국 전통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학습자가 11명 중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국에 전통춤 가운데 ‘북’을 사용하는 춤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 11명의 학습자 중 11명 모두가 북이나

북과 비슷한 형태의 전통 악기를 사용하는 무용이나 공연 등이 있다고 대답했다.²⁸⁾

세 번째 한국의 전통춤을 배우 기회가 있다면 어떤 춤을 배우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도출되었다. 먼저 가사노동이나 아이 양육, 집안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신명 나는 춤이나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고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얻기 위해 전통 악기를 사용하거나 부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춤을 배우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한국 전통춤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안일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답변도 나왔다.

네 번째 한국의 전통춤을 배우다면 어떤 춤을 배우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큰 소리를 내는 악기를 사용하면서 춤을 배우고 싶다는 답변을 한 학습자가 11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채춤 3명, 그리고 기타(살풀이, 부채춤 등) 춤을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 3명이었다.

다섯 번째 한국의 북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1명 중 4명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7명은 없다고 답했다.

여섯째 북춤을 배우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배우고 싶은지에

28)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11명의 출신국은 총 다섯 국가로 중국의 경우, 중국 윈난 지역 디엔 족의 수북 춤과 구이지우 지역 마오난 족의 윈숭이 북춤, 윈난 지역 지우노 족의 큰 북춤 그리고 후베이 지역의 노작 무용인 북춤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악기 중 켄당(kendang)이라는 북이 있는데 주로 연주에 사용하고, 탬버린처럼 생긴 작은 북을 들고 추는 전통춤이 한국의 북춤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베트남의 전통 악기 중 쯡껌(Trung com)이라는 북은 북에 북을 두르고 양손으로 북의 옆면을 쳐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전통 연극이나 춤 공연에서 사용한다. 캄보디아에는 스큐르(skor)라는 북과 비슷한 악기가 있어 이를 연주하면서 공연을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도이라(Doira)라고 하는 둥근 북처럼 생긴 전통 타악기가 있는데 한 손으로 북을 치면서 간단한 춤을 곁들이는데 주로 결혼식과 같은 잔치에서 볼 수 있다.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아이와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센터가 먼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배우고 싶다는 응답도 2명 있었다.

일곱 번째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은 일주일 1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 중 10명이었고, 나머지는 일주일 2번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교육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한국어교육 수업과 비슷한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온라인 수업으로 복춤을 배울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1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3명은 온라인보다는 대면 교육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는데 아홉 번째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직접 교실에서 만나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재미있고 친구들도 함께 배울 수 있으며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춤을 배운다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양한 답변에 도출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전통춤 교육이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

	국적	나이	한국 전통춤 교육이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	한국 거주 기간
A	인도네시아	20대 중반	한국문화의 이해	1년
B	베트남	20대 중반	자녀에게 춤을 가르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음	5년
C	중국	20대 후반	나중에 자녀가 크면 가르쳐 줄 수 있음	9개월
D	캄보디아	30대 초반	스트레스도 풀리고 한국 전통문화도 배울 수 있음	7년
E	캄보디아	30대 중반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12년
F	캄보디아	30대 중반	춤을 추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음	6년
G	우즈베키스탄	30대 중반	잘 모르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	1년
H	인도네시아	30대 후반	TV로 보던 것을 직접 배우면 가족들과 소통이 쉬워짐	9년
I	중국	40대 초반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면 한국 생활이 더 편해질 것임	10년
J	중국	50대 초반	한국의 옛날 생활 방식이나 생각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임	13년
K	인도네시아	40대 초반	한국문화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음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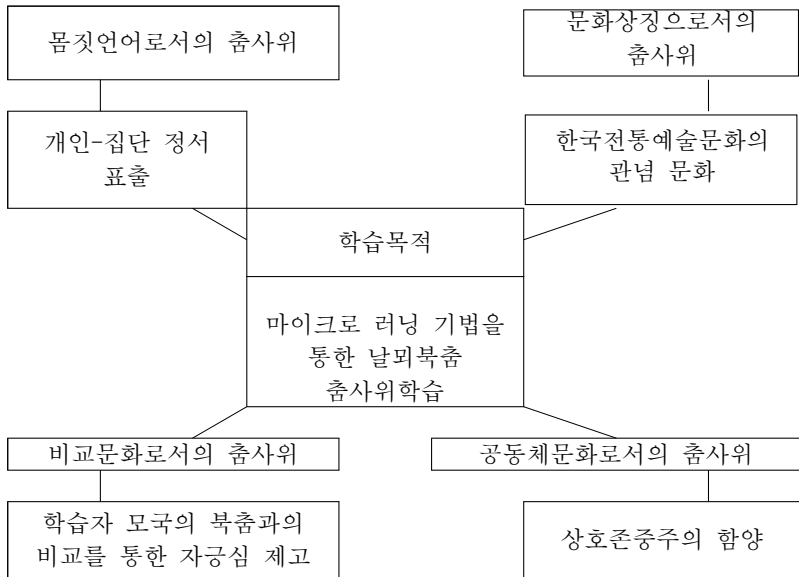
지금까지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1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교육 중 전통춤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분석하였다. 위에 조사한 것처럼 한

국 춤을 배움으로써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평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과의 이해의 벽을 낮추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적인 이유나 기회의 부재로 인해 한국 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던 학습자들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때문에 교육에 오랜 시간 자주 수업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주1-2회,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전통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2년 가까이 받아온 덕분인지 비대면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11명의 응답자 중 8명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다. 나머지 3명은 대면 교육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했으나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선 만큼 대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3.3. 마이크로 러닝 모형과 수업 단계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전통춤을 교수할 경우, 먼저 학습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드는 날피복춤 역시 한국 전통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춤이 가지는 기본적인 몸짓언어로서의 춤사위를 배우는 것이 기본이다. 춤사위는 개인의 정서와 공동체 집단이 전승해온 집단적 정서와 사상의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상징은 춤사위가 내포하는 집단문화상징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춤사위에는 풍요나 다산을 상징하는 문화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고, 혼이나 넋을 달래는

살풀이와 같은 춤은 마을 단위의 제의 문화와 연관되기도 한다. 힘차게 내딛고 돌아서 살짝 내려앉는 춤사위는 신명과 건강한 생명체를 상징하면서 마을의 공영을 희망하는 기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국 전통 예술문화의 관념 문화와 관련이 있다. 날피복춤은 대구지역에서 전승되는 힘찬 남성의 군무인데, 이와 유사한 복춤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즉, 비교문화로서의 춤사위학습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혹은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 생활 적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인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한국인이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림 5 날피복춤 학습목적>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전통춤 수업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기반인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인 다중 저장소 모형, 작업 기억화 모형, 이중 부호화 이론 등을 참고하기로 한다.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기로 한다.

<표 5 한국 전통춤 수업모형>

< 수업 단계 >					
기억회상		▶ 준비/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제시(200자 이내, 혹은 자막 있는 동영상) - 사전 학습활동: 학습 안내, 동기 부여, 학습 목표 확인 		
기억저장	단기기억	▶ 학습수행 ↓	<p style="text-align: center;">< 발견 1단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 콘텐츠 시청 (5분 내외) - 학습활동 - 교육 영상 플랫폼(TED-ED)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토론 - 질문 - 동영상 - 상호의견 공유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 콘텐츠 시청 (5분 내외) - 학습활동 - 교육 영상 플랫폼(TE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토론 - 질문 - 동영상 - 상호의견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 콘텐츠 시청 (5분 내외) - 학습활동 - 교육 영상 플랫폼(TE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토론 - 질문 - 동영상 - 상호의견 공유 			
	중기기억		< 발견 2단계 > : 발견1의 적용과 반복		
				< 발견 n단계 > : 발견2의 적용과 반복	
			과제 해결형 학습(비교와 체화)		
기억활성화	장기기억	▶ 정리/평가			

위 모형은 전체적으로 다중저장소 모형과 작업 기억화 모형을

응용하여 기억회상 단계와 기억저장단계, 그리고 기억활성화단계로 구성된다. 기억회상단계는 이미 배운 내용이나 모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불러오는 단계이다. 수업 단계로 보면 학습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텍스트 제시나 동영상, 그림, 사진 등을 통하여 동기 부여를 하면서 뇌에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는 학습활동을 한다. 마이크로 러닝의 경우, 텍스트 활용 시에 200자 이내의 짧은 내용을 제시하거나 자막 있는 5분 이내의 동영상을 사용한다. 이때 학습 목표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억저장 단계에서는 학습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단기기억 단계와 중기기억 단계를 설정한다. 단기기억은 학습을 통하여 기억하였지만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팩트 있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단편적이고 단시간 기억력을 최대화하는 학습 단계를 말한다. 학습수행 내용을 보면, 5분 내외의 마이크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발표·토론이나 질문을 하는 학습활동을 한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상호의견을 공유하는 오픈 교수-학습활동을 시행하는데, 교육영상물은 TED-ED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미리 탑재해 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습행위를 편의상 <발견1 단계>라 해 둔다. 이런 학습활동을 반복함으로써 단기기억이 중기기억으로 저장된다. 이처럼 <발견1 단계> 활동은 <발견n 단계>까지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다. 물론 학습자의 기억 정도에 따라 <발견 단계>의 횟수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러닝의 장점을 살리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기기억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학습자는 마지막으로 비교 학습을 통하여 체화에 이를 수 있도록 과제 해결형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기억의 활성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정리, 평가 단계를 거침으로써 <학습 단계1>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마이크로 러닝은 이처럼 전달하거나 학습해야 할 내용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제시하고 반복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기억의 활성화를 유도한

다. 이러한 일련의 학습 단계를 연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위에서 설계한 마이크로 러닝에 기초한 날피복춤 학습 단계에서 제외된 복춤과 관련한 제반 내용들도 사실은 학습 과정에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날피복춤은 준비단계와 초·중·고급단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학습하면 기억의 활성화가 증대될수록 학습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복을 잡는 법이나 날피복춤의 발생 설화 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급에서는 날피복춤의 기본 장단과 걸음걸이 연습과 12마당 중에서 정적궁이나 모듬굿 마당, 혹은 살풀이 마당, 덧배기춤 마당을 학습함으로써 날피복춤의 진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고급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원숙한 춤사위와 구성원 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면서 변형 장단이나 개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단계로 학습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외에 날피복춤 의상이나 머리모양 등에 대한 학습은 별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문화 교수법 개발을 위하여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전통예술 문화교육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상호 문화적 이질감을 낮추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내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 욕구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마이크로

러닝 기법의 근간이 되는 다중저장소 모형과 작업 기억 모형 그리고 이중부호화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살핀 후 날피북춤 모션 캡처와 동영상 활용 한국 전통춤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전통춤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국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일반 시민들도 교육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문화적 이질감을 낮추기 위해 한국 문화이해력과 적응력 향상, 나아가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체득하여 정서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날피북춤을 매개체로 한 한국문화교육이 절실하다. 한국인이 가진 정서를 몸동작으로 표출하는 행동문화의 일환인 전통춤을 배움으로써 결혼이주민들은 자국 문화와 비교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단위 콘텐츠를 활용해 단시간 학습으로 집중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언제든지 다시 보기와 반복 학습이 가능한 만큼 기억 강화가 수월하고 상호소통이 자유로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비대면 문화 교수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한 날피북춤 이외 다른 여러 한국 전통 예술문화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 교수-학습지도안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다미(2020). 상호작용을 고려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비아(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성영(2005).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프랑스 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20,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쪽~22쪽.
- 강응관·원종규(2009). 장구/북춤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Vol.19, 한국컴퓨터게임학회, 7쪽~13쪽.
- 권오경(2020). 날피북춤 예능 보유자 윤중곤 명인의 예술세계, <영남춤학회誌> Vol.8, No.2, 영남춤학회, 29쪽~53쪽.
- 김경희(1997). 언어정보의 제시 형태에 따른 학습효과 연구 : 컴퓨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수반되는 언어정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13). 날피북춤의 제의성과 사회 기능성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40집 1호, 무용예술학회, 19쪽~41쪽.
- 김용복(2016).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무용역사기록학> 제41호, 무용역사기록학회, 57쪽~82쪽.
- 김우석(2010). 다문화사회 소통 통로로서의 스포츠: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포츠의 역할,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2014).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무용 교수·학습법 연구: 부채춤, 소고춤, 장고춤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2013). 한국춤 문화원형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화숙 외(2007). 여성결혼이민자 무용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덕중학교(2019).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델 개발. 적용.

노완순(2017).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이러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열(2010).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을 응용한 고전소설 기본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호(2000). 날피북춤의 지도 방안 연구, <국악교육> 18호, 한국국악교육학회, 317쪽~339쪽.

박야성(2016). 마이크로 러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법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재홍·신호영(2020). 마이크로 러닝이 대학생의 학습 만족도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7, 한국융합학회, 369쪽~376쪽.

소효정·이혜란(2017). 마이크로 러닝 연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0,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189쪽~201쪽.

신선아(1996). 한국의 북춤과 일본의 북춤에 관한 연구 : 정재만의 북소리 사위와 와다이코 이찌로의 북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성아(2001). 모션 캡처 테크놀로지의 무용 교육 적용 방법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형모(2013). 텍스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 매체의 크기와 종류가 학습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용칠(2002). 수업 설계를 위한 학습심리학, 교육과학사.

여성가족부(2021). 2021년 다문화 가족 사업 안내(Ⅰ).

이가영(2019). 국내 HRD 담당자의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인식 연

- 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2008). 사회적 소수자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다문화적 접근 연구,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실(2019). e-러닝(e-learning) 한국어교육의 한국문화 콘텐츠 교수설계 분석 : ‘kemp’의 교수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2009). 문화교차적 상황과 교육 현장의 한국 춤 정체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2019). 대구 전통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2004). 소고춤을 활용한 중학교 수업모형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18). 키넥트 방식의 3D 모션 캡처를 통한 김백봉 부채춤 동작 분석 및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하정(2020).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방안 : 현지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신혜(2019).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영남 전통춤의 문화정체성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화봉(2002). 언어정보와 시각 정보의 통합과제 학습에 작동기억이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권희(2021). 전력전자공학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표(2019). 임계경로법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섭(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hmad N.(2017). *The Impact of Audio Podcasting as A*

- Micro-Learning Tool on Co-Education*, E-Leader International Journal, 12(1).
- Baddeley A, Wilson BA(2002). *Prose recall and amnesia: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working memory*. *Neuropsychologia*, 40(10), pp.14-15.
- Beutner, M. & Pechuel, R.(2017). *Micro Units - A New Approach to Making Learning Truly Mobile*. P. Resta & S. Smith (Eds.), Proceedings of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pp.744-751.
- Bochner, S.(1982). *The socialpsychology of cross-cultural relations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Oxford, 4
- Elaine Huei-Lien Chen(2004). A review of Learning Theories from Visual Literacy,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Design&Online Learning Vol.5, Fall
- Ellen Yeh(2014). *Teaching Culture and Language through the Multiple Intelligences Film Teaching Model in the ESL/EFL Classroom*, Ohio University, Journal of Effective Teaching, Vol. 14, No. 1
- Hug, Theo (2005). *Micro Learning and Narration Exploring possibilities of utilization of narrations and storytelling for the designing of "micro units" and didactical micro-learning arrangements*, Onlin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Media in Transition 4: The Work of Stories" at the M.I.T. in Cambridge(MA), pp.3-5
- Mayer, R.& Sims, V.(1994). *For whom is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 Extension of dual-coding theory of*

multimedia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3), p.390

Michael Kerres(2012), *Microlearning as a challenge for instructional design*, *Didactics of microlearning: Concepts*, discourses and examples, pp.98~109

<https://psychology.stackexchange.com/questions/14044/what-is-the-information-storage-capacity-of-the-human-brain>

<https://www.simplypsychology.org/working%20memory.html>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472>

필자 소개

성 명 : 정윤희

소 속 : 영남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80-9 314호 [우편번호]38695

전화번호 : 053-819-5363, 010-6363-4994

전자우편 : janice0405@naver.com

투고일: 2021. 7. 12 / 심사일: 2021. 8. 6 / 심사완료일: 2021. 8. 18